

꿈 위해 한 단계 더 뛰어오르다

인천학산초, 방과후학교 참여 수업 실시



인천학산초등학교(교장 한홍섭)는 11월 14-19일 1주일간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신나는 방과후학교 참여 수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방과후학교 23개 부서의 강사들이 하루동안 수업을 공개하는 형태로 각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신뢰를 높여 사교육비

를 줄이고 학교 교육과 방과후학교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학기 방과후학교 공개수업을 참관했던 여러 학부모는 "공개수업을 통해 아이가 수업에 잘 적응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선생님이 아이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지도해주시는 모

습에 감명을 받았다"며 참관 소감을 밝혔다.

2학기 공개수업은 부서 특성에 따라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수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아동 입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신나는 수업, 학부모 입장에서는 수업을 좀 더 깊이 있게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학산 꿈담이 방과후학교는 2016년도 방과후학교 1기 운영을 시작해 현재 3기 진행중에 있으며 4기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실시한 방과후학교 공개수업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 방과후학교 학부모 모니터팀 요원 등이 참석해 방과후학교 운영의 진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됐다.

한홍섭 교장은 "초등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살려주기 위해, 창의, 인성을 기를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기적절한 평가와 피드백으로 학부모의 교육관측에도 이바지하고, 사교육을 넘어서는 확산 꿈담이 방과후학교 운영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명성 기자 as@

"수학이 내 손안에 있어요"

인천김주초, 초등 수학축제 개최

인천김주초등학교(교장 이준희)는 11월 12일 인근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1000여 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2016 인천 초등 수학 축제를 개최했다.

김주초는 '생각하는 수학, 체험하는 수학'을 주제로 수학 교구 체험, 만들기, 각종 보드 게임, 수학 클리닉을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 운영했다.

수학 교육 선도 학교 운영 프로그램의 성과를 대내외에 알리는 물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해 생활 속에서 수학의 유용성을 깨닫고, 수학의 아름다움과 흥미를 느끼면서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향상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진행했다.

수학 축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 수준과 흥미에 맞는 다양한 수학 놀이를 즐겼다. 특히 각 학년 교육과정과 발달 단계를 고려해 김주초에서 자체 개발한 각종 수학 키트놀이는 기존에 접할 수 없었던 게임이와 학생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했다.

서부 초등 수학 교과 연구회와 인천신현고등학교 수학 동아리 학생들, 김주초 수학 동아리와 도우미 학생들의 도움 아래, 즐거운 수학을 경험한 학생들은 수학 축제 종료 시간을 아쉬워하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수학을 가까이 하는 체험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번 축제를 통해 김주초는 지역 사회 및 가정과 협력해 학생 중심의 수학 학습을 선도하기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고, 학생들이 획일화된 교과서 수학에서 벗어나 생활 속의 수학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인명성 기자 as@



함께 배움으로 성장하는 아이들

인천석남중, 지역사회 연계 사랑나눔 김장김치 봉사활동

함께 배움으로 성장하는 행복학석남중학교(교장 고보선)는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뒷밭에서의 일은 다양한 경험으로 자연의 생명 순환, 식물의 생장주기 파악,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의 의미를 깨닫고, 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 인성 및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는 프로그램 '꿈동산 뒷밭 교실'을 운영했다.

우선 1학기는 수학 파티로 직접 기른 채소로 선생님을 초대해 사제동행 삼겹살 파티를 해서 사제간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을 더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됐고, 2학기는 김장 배추, 열무, 갓, 죽과 등을 싣고 가면서 서로 협동하고, 서로 배려하고, 자연의 소중함과 땅 흘리는 농부의 노력을 체험했다.

오늘 정성껏 김치를 담가 친구들과 양념을 배비며 서로 먹여주며, 챙겨주고, 고기를 학생들이 손수 찢어나누는 기쁨을 느꼈다. 또한, 사랑 나눔으로 석남3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독거노인 가정의 어려운 내 분께 직접 담근 김장 김치를 배달해 학생들

은 수학의 기쁨과 동시에 사랑 나눔의 행복까지 누리게 됐다.

김장김치를 배달한 3학년 조모 학생은 "3년 동안 녹색성장반을 하면서 자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2학기에 는 배추를 싣고 수확해 김장을 해 이렇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직접 김치를 가져다 드리니까 자원봉사자들의 마음도 알게 됐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고 기쁘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모 학생은 "올해 1학년 입학해 녹색성장반에 처음 들어와서 대를 때 밭에 물을 대러 가고 물을 뽑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는데 3학년까지 녹색성장반 동아리 활동을 계속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내년에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김장 김치를 담가 배달해줘요"라며 내년 뒷밭 교실에 대한 의지를 보이게 했다. 김치를 받으신 할머니께서는 "내가 90세로 이렇게 혼자 사는 데 이렇게 농사지어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오니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인명성 기자 as@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 대처하자

작전중, 전문직업인 초청 특강



"미래를 맞이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작전중학교(교장 이서균)는 11월 15일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직업인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생생한 경험담과 직업적 특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고, 다양한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진로 및 직업 선택 시 직접적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이 행사에는 PD, 제빵사, 사진작가, 성우, 공무원, 의류디자이너, CS강사, 사업가, 피트니스 트레이너 등 다양한 직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했다.

학생들은 각 분야별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준비과정 및

직성, 그 직업을 갖게 됐을 때 수행하게 되는 일, 필요한 학력 및 전공, 자격증, 요구되는 경력, 타 직종으로의 전직 가능성 등을 집중 논의하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의류디자이너가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고 디자인을 통해 사람을 더 가치 있고 빛나 보이게 하는 의류디자이너는 직업이 참 멋지고 좋겠다.", "제빵사는 단순하게 빵을 만드는 직업이라 생각했는데 협동심과 인내심, 체력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며 학력이나 기술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력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관심 있는 분야여서 시간이 좀 모르고 재미있게 들었습니다."고 학생들은 소감을 밝히며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익하고 흥미롭게 강의를 이끌어 준 강사들에게 마음을 다해 감사했다.

"단정으로 만족하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라는 스티브잡스(Steve Jobs)의 말을 오늘날 가슴에 새기며 작전인은 찾고 또 찾는 것이다.

인명성 기자 as@



학교환경 청결지킴이

사회적기업(예비) 새한에이치엠입니다

주요 사업내용

- 학교청소 인력, 경비인력 파견 및 관리
- 건물 내외 청소, 바닥청소 및 코팅, 유리창 청소, 학교 대청소
- 수목수목, 모래수목, 교실(특별실)수목, 급식실수목
- 저수조 청소 및 소독, 배수로 청소, 폐기물 처리
- 냉난방기 청소, 선풍기 청소
- 급식실 후드(덕트) 및 바닥 청소
- 각종 청소용품 및 장비 납품

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97번길 14, 102호
 Tel. 032-426-9399, Fax. 032-426-9397
 서북지사 : Tel. 032-512-3782, Fax. 032-724-0782

진정한 봉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부광중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개최



부광중학교(교장 김용기)에서는 여름내 운영한 뒷밭교실 종결활동으로 11월 18일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뒷밭교실 학생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와 후유란은 배추로 담은 김장김치를 만든 이웃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고자 부광중학교 교육복지실에서 마련한 것이다.

김장담그기 행사에는 20여 명의 학부모와 뒷밭교실 학생이 참여했으며

100% 정도의 김장을 담가 조손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어택에 배반했다. 참여한 학생들은 김장을 처음해보았으며 김장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소 체험해보고 부모님의 묵묵한 노고에 깊이 감사했다.

이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 회장 문현심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녀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모녀간의 정을 더 돈독히 쌓을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봉사는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음을 알게 됐고 그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원석 교장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통해 배우는 사람들의 마음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 보다 더욱 중요해지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시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명성 기자 as@

서구도서관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자상 수상

인천시서구도서관(관장 김영란)은 지난 24일 국립중앙도서관 대회의장에서 열린 공공도서관협력 세미나 및 시상식에서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자 단체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상은 도서관간 협력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의 향상에 노력한 도서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해마다 국립중앙도

서관에서 포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1개 단체와 4명의 개인이 선정되었다.

서구도서관은 책이음 및 책바다 서비스를 통해 전국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식정보 자원의 공유체계를 확산하는 물론 지역내 작은도서관과 순회문고, 병행문고 등에 독서자료의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독서문

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명실공히 지역사회내 거점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특출히 해내고 있으며 이와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영란 관장은 "앞으로도 서구도서관은 다른지역은 물론 지역내 여러 도서관의 도서관들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내 건전한 독서문화 생태계가 유지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